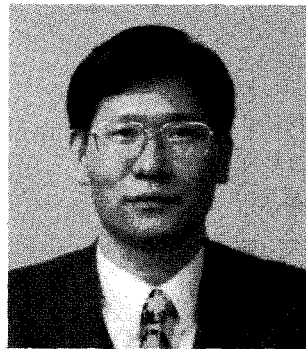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실천방법



안전관리를 위해서 근로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그를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는 누구보다도 안전을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감독자는 안전을 위해 철저한 지휘감독을 행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사기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간내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노순규 /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경영학박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1. 안전관리의 품질향상

작업현장에서 무재해가 지속되면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한 근로자의 작업몰입도가 더욱 높아지므로 경영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작업장에서 건설되는 공사의 질이 향상되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설비공사업에서도 그렇듯이 실제적인 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역시 작업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근로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를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는 누구보다도 안전을 생각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감독자는 안전을 위해 철저한 지휘감독을 행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사기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간내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적당주의적 작업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원칙대로 작업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면 안전사고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안전한 작업장 관리를 위하여 명심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신의 신체 중요성을 자각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립하여야 한다.

둘째는 확인, 점검, 개선의 추진이다. 탁상공론식의 계획만 수립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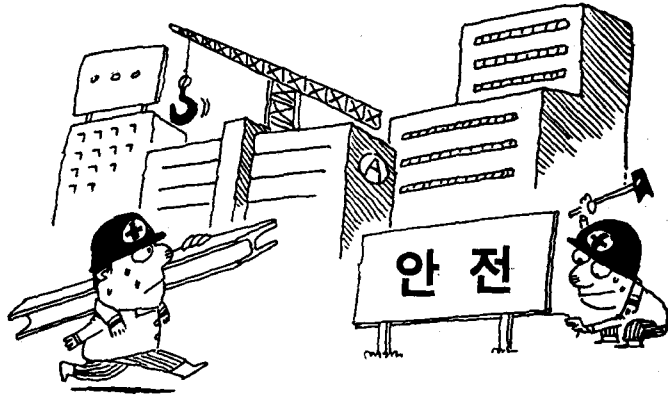
셋째는 쾌적한 작업현장의 구현이다. 정리 및 정돈된 작업장은 안전의 토대라는 생각하에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운영함과 동시에 작업전후에도 반드시 현장을 잘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산재감소의 기본원칙과 사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이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며 경영자는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소에 작업장 주변을 잘 정리 정돈해야 하며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서있게 수행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만약 기구 및 공구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으면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작업장 주변의 통로를 깨끗이 청소한 후 작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나 설비가 가동중일 때는 정비나 청소를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란 해이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스며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무리 일에 숙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되며 '이렇게 해도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된다. 설비를 조작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K사에서 재해율 0.3%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인 0.5%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독창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철저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천한 데 있다.



작업상 무리가 간다고 생각되면 선임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과 상의하여야 하며 자신의 작업공정이 아니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설비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작업시에는 단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예컨대 너풀거리는 상의나 찢어진 바지를 입는 것은 금물이며 작업장을 출입할 경우에는 문을 조용히 여닫아야 하며 앞으로 당기게 되어 있는 문을 열 때는 옆으로 비켜서서 열어야 한다. 또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서로 신호나 연락을 확실하게 정해 호흡을 맞추어야 하며 비상표지 및 안전표지판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바르게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안전에 필요한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예컨대 S사가 시공하던 신축공사현장에서 철파이프를 와이어로프에 묶고 옮기다가 로프가 풀리면서 파이프가 떨어져 밑에 있던 근로자가 압사하였다. 이 사고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물체를 옮길 때는 작업자가 낙하반경내

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안전의무사항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H사의 신축사옥현장에서 슬라브 철제조립작업 중 크레인 신호수와 운전기사와의 신호가 불일치하여 철골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작업대기중이던 인부 2명에게 철골이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3. 안전관리 모범사례

1) 현장별 목표관리

K사는 경영목표의 최우선을 '재해율 낮추기'에 두었다. 현장소장이 참석하여 다짐대회를 갖고 현장별로 목표 재해율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는 재해율 0.3%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인 0.5%를 초과달성했다. 이처럼 안전관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독창적인 안전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과 철저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천해 온 데 있다. 예컨대 안전지도점검받을 편성하여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개인보호구

분기별로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제1분기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제2분기에는 추락 및 낙하 등의 재해예방을, 제3분기에는 투입장비의 안전관리를, 제4분기에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의 철저한 착용, 현장정리정돈 등 각 현장마다 적어도 월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소장이하 담당자들에게 대해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 삼심일행의 운동

B사는 재해를 제로(0) 포인트 달성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후 행동', '안전시설물 설치후 행동', '정리정돈후 행동' 등 삼심일행운동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다. 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틀, 철근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무재해 안전사업장의 구현에 적극적이다. 특히 분기별로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제1분기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제2분기에는 추락 및 낙하 등의 재해예방을, 제3분기에는 투입장비의 안전관리를, 제4분기에는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외에도 B사는 안전관리 책임전담제, 안전순회반 운영, 산재추방위원회, 무재해포상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인간존중의 경영

L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에 충실할 경우 중대재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2개월에 한번씩 안전보건관리

위원회를 최고경영자가 직접 주재하면서 안전보건관리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L사의 안전관리활동은 크게 상벌제도, 무재해운동, 안전교육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여 안전관리 우수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공사수의계약을 하는 등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있다.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별, 사업본부별로 안전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며 또한 안전관련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적 향상은 생명이 보호될 때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치 않는 경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경영자의 철학이기도 하다.

4) 겹겹이 안전운동

D사는 인간존중 이념에다 자동안전장치(Fail Safe)개념을 적용시킨 겹겹이 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두고 매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 협의 및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그 결과 산재발생으로 인한 손실절감액과 안전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액이 매출액의 약 2%에 달한다. 또 눈높이 안전지원지도 등 다양한 안전관리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5) 인명은 안전확보

E사는 '인명은 재천'이 아니고 '인명

경영자는 안전에 관한 한 중간관리자들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한다. 다같이 안전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로서의 '안전문화'를 조성시켜야 한다.

은 안전확보'라는 구호하에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영자직속하에 안전관리부를 설치하고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 책임자 전원이 참석하여 분기당 1회씩 '현장순회 사고방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자와 일선 현장소장간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경영자는 늘 "안전관리활동에는 한치의 느슨함도 있어서는 안되며 안전관리의 성패는 전임직원의 투철한 안전의식과 일체감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사는 안전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또한 현장단위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포상제도 중에 안전관리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수혜혜택 비중이 가장 크다.

4. 안전의식의 실천화

안전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답이 나올 수 없을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거나 때로는 너무 쉬워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즉 안전이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기거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여 소홀해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려운 것은 풀어볼 생각도 않고 또한 상식처럼 생각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여 간과하는 경우의 결함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지나쳐 버리는 오류를 과감히 깨뜨리고 어려운 것

은 끝까지 풀어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경영자는 안전에 관한 한 중간관리자들과 함께 솔선수범하여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한다. 다같이 안전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로서의 '안전문화'를 조성시켜야 한다. 각 기업은 안전제일주의를 추구하려는 의미의 기업이미지를 표방하고 안전에 관해서 세계일류가 되게끔 해야 한다. 특히 안전을 실천함에 있어서 '안전 마인드(mind)'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영자는 시설투자를 현재보다 좀더 확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돌보아 가면서 안전작업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본수칙을 잘 지키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술과 시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합해진다면 산업현장의 무재해는 결코 먼 나라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3백명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74.07%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점차 기업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한번 재해를 당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각 현장을 24시간내내 모니터로 체크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산재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요일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생체리듬이 있듯이 사고도 빈발하는 주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자가 그와같은 시간대 및 요일대를 중심으로 산재예방에 힘쓴다면 지금보다 산재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경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출근직후와 점심시간후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총 7만 8천34명의 산재사망 혹은 부상자 가운데서 상오 8-10시대에 1만6천2백90명(20.88%)이 재해를 입어 가장 많았으며 하오 2-4시대는 18.28%(1만4천2백62명), 또 낮 12시부터 하오 2시까지는 1만2천3백41명(15.81%)이었다. 그리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이 16.27%(1만2천6백94명)로 가장 많고 월요일은 16.22%(1만2천6백58명), 화요일은 15.94%의 순으로 산재가 빈발했다.

5. 맺음말 및 제언

앞으로는 산업안전과 기업경영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을 위한 투자를 통하여 간접적 혜택이 주어짐을 인식하고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경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건설, 제조, 전기, 운수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문화와 제도를 정립하여 안전을 위한 과정과 절차가 업무수행의 필수사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혹은 행동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작업에 있어서는 기계나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잠재위험성을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작업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위험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근로자의 철저한 인식이 일치되어야 성공할 것이다. 예컨대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재해란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작업중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경영자는 “근로자가 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을 경영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흔히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예방’을 철저히 하고 또한 작업현장의 정확한 성격 파악이 급선무이므로 작업내용을 잘 설명하고 들어야 한다. 이제 회사는 안전을 위하여 ‘인간중시의 경영’과 ‘최고의 품질 및 안전구현’이라는 경영방침을 정립하여 사업장 전체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제도정립 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현장밀착경영이 안전관리에 필수적일 것이다. 또 자신의 회사에 맞는 독창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작업현장이 점차 대형화 및 다양화되면서 더불어 안전분야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근로자와 더불어 일체감을 형성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설비 *